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제214호-창립2020.6.28

길목교회

THEWAY.NEWS

주후 2024.8.25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화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 이길주
교육목사 : 권세진
교육전도사 : 전정민
교육전도사 : 김상진
음악사역 :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 전정민
가야금 : 김고은
해금 : 이건명
베이스 : 장 천
피아노 : 정지혜
기타 : 조성권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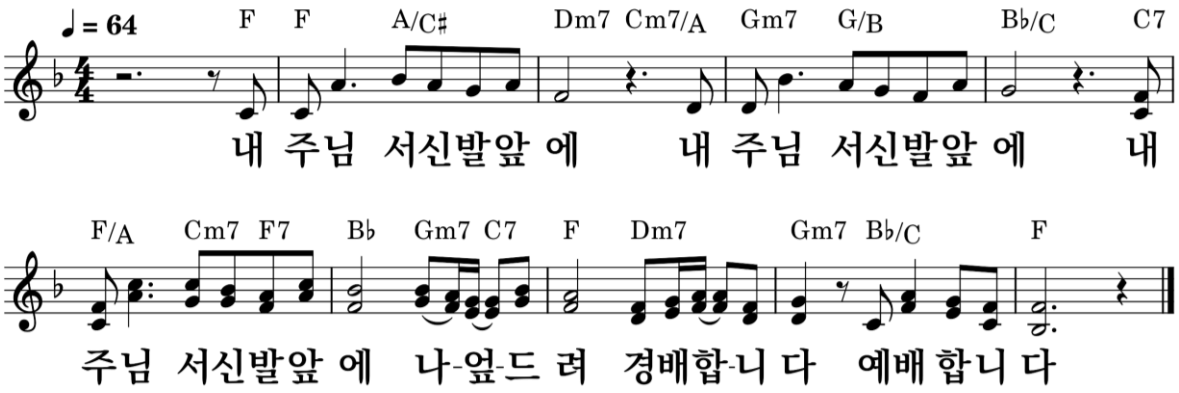
theway.news

주일예배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 인도: 이길주 목사

입례송 .....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 다같이



성시교독 ..... 잠언 12편 ..... 다같이

인도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성도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인도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성도들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인도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성도들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인도자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성도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인도자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다같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참회기도 ····· **나,이웃,교회,세상** ····· **다같이**

사죄의 확신 ····· **다같이**

인도자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다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십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 **찬양팀과 함께 다같이**

감사의 고백 ·····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주보 감사노트에 기록해보세요

말씀과 나눔

말씀읽고 듣기 ····· **로마서 4:1-12** ····· **다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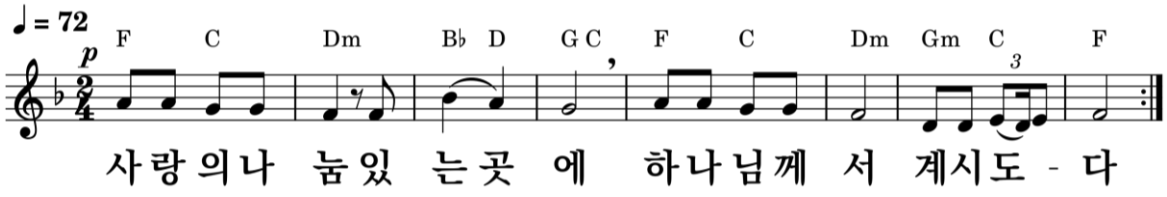
말씀묵상 ····· **다같이**

말씀권면 ····· **이길주 목사**

묵상기도 ····· **다같이**

응답과 축복

응답의 찬양 ····· **다같이**



두 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말씀기도 ····· **다같이**

감사찬양 ····· **"하나님의 부르심"** ····· **다같이**

결단과 축복 ····· **다같이**

인도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제자와 선교사입니다

성도들 **보냄 받은 곳에서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인도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에서 지켜주십니다

성도들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며, 정결하고 착한 행실로 살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며, 은혜와 평강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노트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일 3가지 이상을 기록해보세요

성경말씀 메시지

1-3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첫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이룬 일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 낸 것이라면, 당연히 그 공로를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하시는 일에 뛰어들었다. 바로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바로 서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세워 주실 것을 신뢰했다."
4-5 만일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을 잘 해낸다면, 여러분은 보수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이 받는 것은 임금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그분께서 해주실 것을 신뢰한다면, 바로 그 신뢰가 여러분을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은,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6-9 이 새로운 관점은 다윗에게서도 확증됩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워 주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범죄가 지워지고 지은 죄 말끔히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 그 죄를 청산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복이 우리 종교의 길을 따르는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만 선언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따르는 길에 대해 들어 본 적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훈련받아 본 적 없는 사람들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해 봤습니까? 일단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실부터 말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선언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10-11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언이 내려진 것은, 그가 할례라는 언약 의식을 통해 몸에 표시를 받기 전이었습니까, 그 후였습니까? 맞습니다. 표시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앞에 바로 세우시려고 오래전부터 그를 위해 일해 오신 것에 대한 증거이자 확증의 의미였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하나님의 이 일을 자신의 온 삶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12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아직 "바깥 사람"인 이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인다면, 아브라함은 그들 모두의 조상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사람들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종교 의식을 거친 이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행한 그 종교 의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험의 삶을 살기로 그들이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의 표시를 받기 오래전부터 바로 이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성경말씀 개역개정

1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9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11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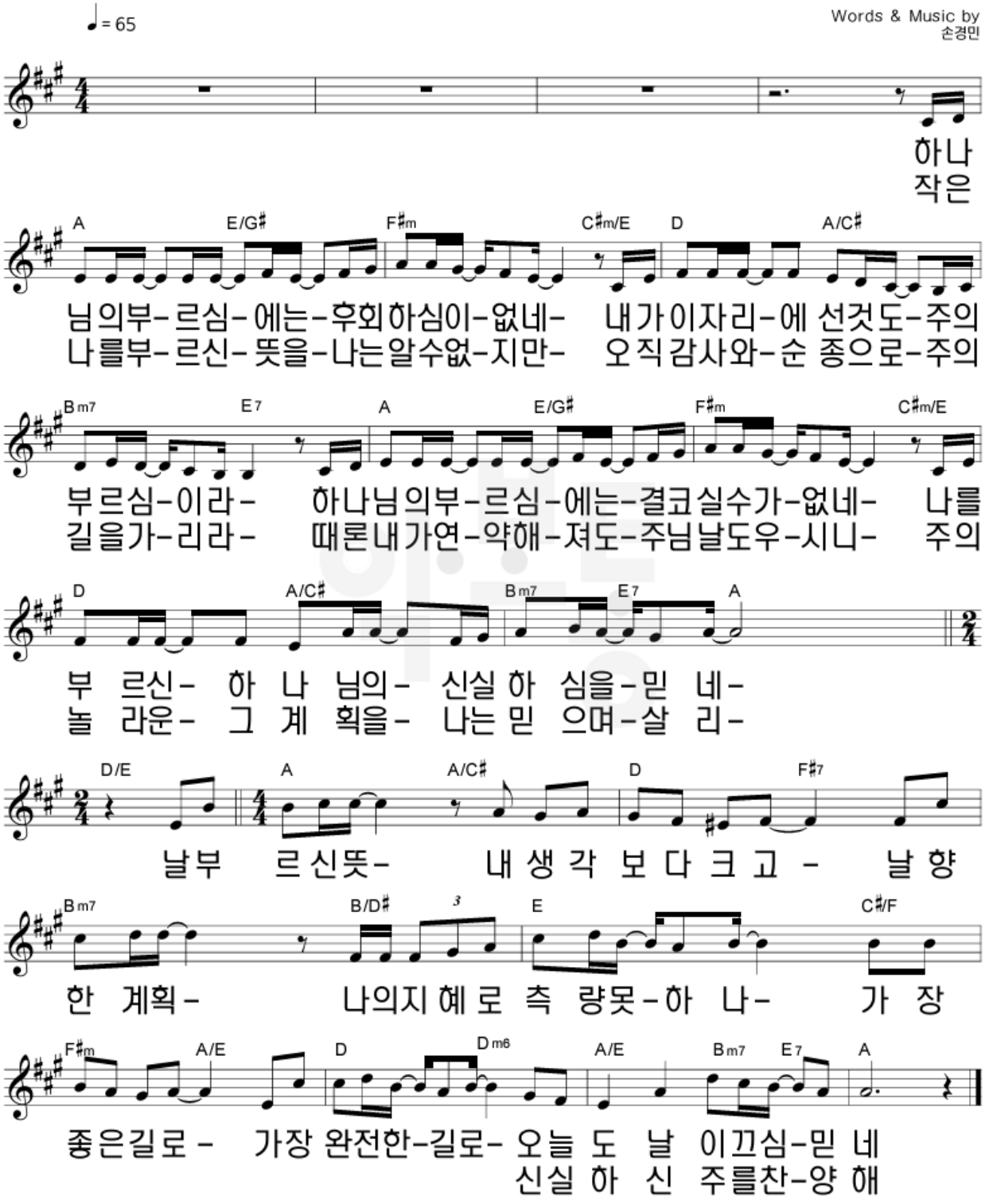
묵상노트

감사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 = 65

Words & Music by
손경민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30
주일 공동체나눔	주일 오후 1:00~3:0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30 ~오후 3:00
사모공동체모임	금요일 오후 1:00~4:00
청년 성경과외	목요일 오전 10:30 ~오후3:0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교육전도사	김상진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 가치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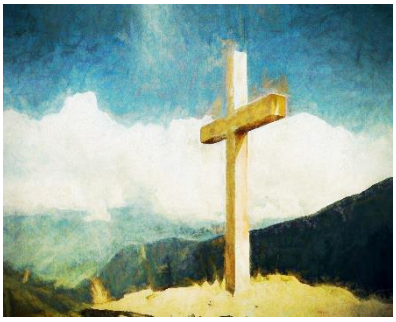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메모

공동체 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1일 오후 커피토크 초대손님, '박은혜 선교사'

다음주에는 니제르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박은혜 선교사님을 모시고 오후 커피토크 시간을 갖습니다. 니제르와 선교사역과 삶에 대한 질문과 응답으로 채워지는 시간, 편하고 모두에게 도전되고 은혜되는 시간 기대해주세요.

그리스-튀르키예 성지순례 모집 (접수중)

내년 봄, 길목교회 9박10일의 그리스-튀르키예 성지순례에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점심식사 섬김 신청 받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점심식사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섬기실 수 있고, 권종신 사모님에게 알려주세요.

평신도 쭈바이블 1기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1년 과정의 평신도 쭈바이블 과정이 시작되어 진행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또 참여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사명의 자리를 위해서 중보해주십시오.

김상진 전도사 복귀

김상진 전도사님이 튀르키예에서 3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다음주부터 복귀합니다. 한국에서의 3개월의 기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잘 인도함받고 훈련받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길목교회 사역

매주 화요일 청년성경과외 (오전10:30-오후4:00, 길목교회)
매주 목요일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오전10:30~오후3:00, 길목교회)
매주 금요일 사모공동체모임 (오후1:00-오후4:00, 길목교회)